

# 새로운 학문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서 나온다

## 문자의 발견 역사를 흔든다

후쿠다 데쓰유키 지음



동서고금 최고의 군사 고전으로 꼽히는 '손자병법'을 지은 이는 누구일까? 오랫동안 안 손무와 손빈을 두고 지속되던 논쟁은 1972년 중국 산둥성 '은자산 1호 한묘'에서 발굴된 죽간(竹簡) 덕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죽간을 검토한 결과 손무의 저작임이 증명된 것이다.

"새로운 학문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서 나온다." 중국 근대 석학의 한 사람인 왕궈웨이(1877~1927)의 말이다. 그는 20세기를 '발견의 시대'라고 불렀다. 중국 고대사를 새롭게 고쳐 써야 할 정도로 의미있는 문자 자료가 고분과 유적 등 땅속에서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이다. 발굴된 토기파편 하나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하물며 뼈, 대나무(竹簡), 나무(木簡), 비단(帛書)에 쓰여진 문자들의 가치는 그 이상이다.

최근 출간된 '문자의 발견 역사를 흔든다'는 은대(殷代) 갑골문에서 당대(唐代) 투루판 문서에 이르기까지 20세기에 중국 각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출토 문자들을 시대 순으로 소개한다. 중국문자학과 서법사(書法史)를 연구하는 저자 후쿠다 데쓰유키 일본 시마네대 교수는 출토결과 새롭게 밝혀진 중국 고대사에 대해 흥미진진하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갑골문과 이궈, 수호지 진묘 죽간, 마왕퇴 한묘 백서, 누란 출토문서



1976년 3월 중국 섬서성 주나라 유적지에서 발견된 청동 제기 '이궈'. 그릇 안쪽 바닥에 새겨진 4행 32자의 명문(오른쪽)을 통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한 '목야 전투'가 실재했음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등 주요 출토문자 자료를 시대에 따라 10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 첫머리에는 연표와 지도를 실어 독자들이 자료연대와 출토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했다.

이집트 나일강변에서 발견된 '로제타 석'이 이집트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길잡이였다면, 거북이 등딱지와 짐승 뼈에 새겨진 갑골문은 고대 은 왕조의 실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했다. 1976년 출토된 청동기(이궈)는 주나라 무왕이 은 왕조를 멸망시킨 '목야전투'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다. 당초 '역경'(易經)은 진·한 이후에야 유교 경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1993

년 '곽점조간'이 출토됨에 따라 전국시대 중기 이전부터 이미 유교 경전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75년 배수구 굴착공사 도중 우연히 진시황때 지옥(冶獄) 직무를 수행한 관리 묘(수호지 11호 진묘)가 발견됐다. 이곳에서 진나라 법률관련 1155매의 죽간이 나왔는데 범칙국가 진의 구체적인 통치모습을 크게 수정할 수 있었다. 1971년 '마왕퇴 1호 한묘'에서 발견된 2100여년전 미라와 인근 3호분에서 출토된 비단에 쓰인 대량의 서책은 당시의 사상사, 과학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오나라때 10만매의 목간·죽간 자료가 왜 우물속에서 발견됐는지 등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역시 획기적인 출토문자가 많을 텐데' 하는 생각에 닿는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출토문자 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중국만이 아니라 고대 한반도와 일본까지 확대한다면,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 또한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너머복스·1만8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C. 라이트 밀스=1962년 마흔여섯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화이트칼라', '파워 엘리트', '사회학적 상상력' 같은 책을 펴내면서 미국의 사회과학계의 큰 획을 그었던 C. 라이트 밀스. 이 책은 밀스의 대학 시절부터 이어 온 학문과 사상의 궤적에 비중을 둔 지성사 연구다. 저자 대니얼 기어리는 이 책에서 '우상'이 아니라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고민하는 '모순된 인간' 밀스를 그려 내고 있다. <삼천리·2만8000원>

▲미사일 바이블=20세기가 되자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표적을 향해 알아서 날아가 정확히 쏘는 무기가 등장했다. 미사일이다. 책은 미사일의 역사부터 미사일의 종류, 로켓, 유도 방식, 기체, 날개, 탄두, 미사일 회피·방어·요격 시스템, 유도 및 구동장치, 발사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는 미사일을 집중 해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전문용어는 본 내용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다. <플래닛미디어·2만2000원>

▲chichi friends=어른들을 위한 감성동화 '치치프렌즈'. 도도한 시크한 성격 가진 치치와 소심하고 겁이 많지만 미려하도록 착한 램, 성질 급하고 실수가 많은 로 맨티가이 문테로와 친구를 처음 사귀기 시작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지코. 너무나도 다른 성격 가진 셋이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스텝시진처럼 다룬다. 넷은 적당히 위하고 적당히 시샘하지만 결국에는 곁에서 함께 해 주는 서로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친구가 된다. <푸른감성·1만3000원>

▲단박에 한국사=심오한 선성이 쉽고 재밌는 올바른 역사책을 펴냈다. 단순한 역



사적 사실 나열에 그치지 않고 조선 말기부터 해방을 맞이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격동의 한국사를 입체적으로 풀어 쓴 전방위 역사책이다. 저자는 황제국이었던 중국이 청프전쟁, 청일전쟁에 패배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침몰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격랑에 몰아넣은 동아시아 주변국, 세계열강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사건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마지막까지 아우른다. <위즈덤하우스·1만9800원>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에 관한 실험=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노동문제의 핵심이 노동시장의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되어 있으므로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유연하다고 주장한다. 책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 온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성공과 한계의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현실을 돌아본다. <후마니타스·2만5000원>

## 결혼 후 ... 사랑이라고 부르던 것은 단지 사랑의 시작이었다

###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알랭 드 보통 지음

한국 작가가 사랑하는 외국 작가 중 한명인 알랭 드 보통이 돌아왔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 앤 텔'에 이르는 일명 '사랑과 인간관계 3부작' 시리즈로 전 세계 20여국에 번역 출간돼 수많은 독자들을 매료했던 작가다.

'키스 앤 텔' 이후 21년 만에 내놓은 장편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은 일상



의 범주에 들어온 사랑에 대해 통찰한다. 사랑하고 이별하는 과정이 그려졌던 전작들과 달리 영원을 약속한 그 후의 이야기다.

전작들이 두 남녀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사랑의 딜레마를 그렸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 작가는 영원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랑의 여러

움을 파고든다.

각기 한쪽 부모의 부재 속에서 성장한 두 주인공 라비와 커스틴은 열렬하게 사랑하고 결혼한다. 그러나 균형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 이케아에 컵을 사러 갔다가 의견 충돌로 빈손으로 돌아오며 이들은 함께하는 삶에 의문을 던진다. '이걸 평생 어떻게 견디고 살아야 하나'. 이후 두 사람은 가치관이 부딪히고, 육아는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부부생활은 활력을 잃게 된다. 더욱이 사회생활에서의 자아와 가정에서의 자아가 명백히 엇갈리는 갈등 관계에 빠지고 만다.

작가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사랑의 시작이라고 단언한다. 낭만의 한계와 결혼 제도의 모순을 넘어 성숙한 사랑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유연한 사랑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에게는 당장의 욕망과 분노에 휘둘리지 않을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번역자인 김한영씨는 '옮긴이의 말'에서 "소설과 에세이가 절묘하게 만난 이 소설에서 알랭 드 보통은 이제 낭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러준다"며 "결혼은 사랑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듯스런 삶에서 사랑을 지속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은행나무·1만3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어린이 책

▲달려라 원발자전거=한쪽 다리만으로 가나를 자전거 횡단하며 '불구란 불가능을 뜻하지 않는다'를 몸소 보여 준 임마누엘 오포수 예보아의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따뜻하고 담백하게 그려낸 그림책. 장애를 가졌거나 사회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그려내면서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씨드북·1만2000원>

▲달님의 산책=해가 지고 난 뒤, 까만 하늘 위로 두둥실 떠오른 달님과 함께 떠나는 상상 여행을 그림책으로 담아냈다. 어른에게는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물건도 아이에게는 신기한 장난감이 되듯, 달님에게도 온 세상은 그저 신기한 것투성이다. 달의 시각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푸른솔주니어·1만1000원>  
▲효도왕 선발 대회=효도는 부모님은 물론 효도하는 자녀를 역시 즐거운 일이라



는 점을 짚어 준다. '엄마한테 효도 안 할 거야'라며 어깃장을 놓던 오포수가, 엄마 발을 찢겨 드리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을 통해 아이들도 효도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 <콜라·9500원>  
▲괴물님이 나가신다!=사랑을 바라는 어린이의 마음을 심술쟁이 꼬마 곰을 통해 유쾌하게 풀어낸 그림책. 숲의 무법자 꼬마 곰은 숲 속 동물들 괴롭히기를 즐긴다. 그런 꼬마 곰에게 아줌마 곰은 꼬마 곰이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던 것을 선물한다. 부드럽고 따뜻한 필립에 꼬마 곰의 마음에는 커다란 파동이 일어난다. <플라바람·1만원>

**평택 토지 전문**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 120만평 |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도 후회 없습니다.

**평택 토지 매매**

- ① 평택 고덕면 당현리 (고덕신도시 5분) / 토지 613평 ▶ 매가 5억 8천 235만
- ② 평택시 고덕면 통천리 (고덕신도시 5분) / 2,223평 (평당 35만) ▶ 매가 7억 8천 178만
-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고덕신도시 5분) / 775평 (농림지역) 도로 물림, 계획관리지역 옆 ▶ 매가 8억 5,250만
- ④ 진위면 마산리 / 314평 (투자 A급) 진위역과 LG산단, 마산단지 지번 ▶ 매가 3억 7천 680만
- ⑤ 진위면 마산리 / 301평 (전) 마산산단 25만평 정문 앞쪽 ▶ 매가 5억 2천
- ⑥ 평택시 지산동 (송탄 터미널 3분) 빌라, 오피스텔 개발부지 추천 / 193평 ▶ 매가 12억 6천만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

**경기도 화성시** (공장부지)

정남 IC 5분 !! 평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지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10억 (평당 56만)

010-7384-7800 | 010-6670-98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영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용 5천)

062-527-7600 | 010-6834-4800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 ① 북구 중흥동 (근린상설) 토 222평, 건 136평 수입자동차 정비소, 광주역 1분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3천
-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8평 신창중 정문, 신축건물 룸 11개 - 월수익 350만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7천
-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입구,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5억5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장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전 경험자 우대, 환영